

한국어항협회 2003년도 정기총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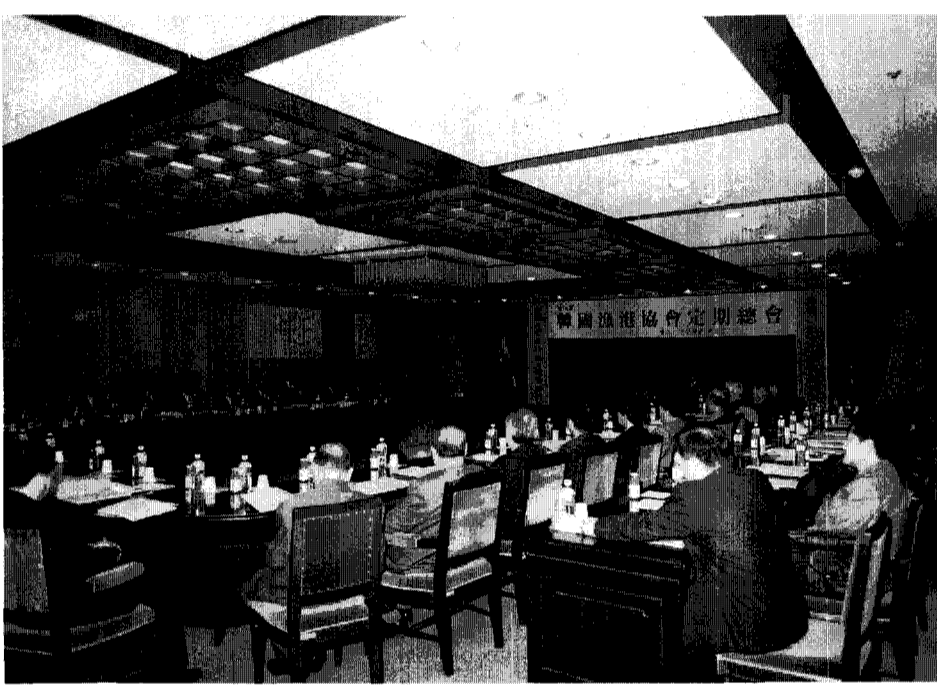
어촌어항 종합적 발전방향연구 등 사업 확정

차기 회장에 배평암씨 손정식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

한국어항협회는 3월11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총회에서 △어촌어항의 종합적 발전방향 연구 △어항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강화 △어항 환경정화사업의 중점 추진 △어항인의 총의결집 및 충실한 대변 △항구적인 자립경영 기반구축 등 올해 주요사업의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차기 회장에 배평암씨(전 해양수산부 차관보, 프로필 2면)를 선출하고, 손정식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복지어촌건설을 위하여는 어업인 스스로의 자원관리형 어업과 생산기반시설 확대 및 관광 등 다기능 종합어항 및 친환경적 어항개발과 더불어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을 위해 ‘어촌·어항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중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 한국어항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허성관 장관은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과 어장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가칭 ‘어촌어항협회’로 변경하는 등 어촌어항의 발전 및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성관 장관은 이와함께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손정식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어항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협회 발전을 위



하여 기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정식 회장은 이에앞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의 수산정책 방향은 증산시책이나 지원수단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수산인프라 구축과 SOC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어촌과 어항과 어장을 일체로 하는 종합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하고 “도시수준의 문화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활력있고 쾌적한 어촌정주권 조성을 위한 어촌의 공원화와 어촌경제권의 중심지이며 어촌개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어항을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관광, 휴양, 레저 등 어촌소득원을 개발해 준다면 돌아오는 어촌으로 환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를 대 도약의 해로 설정, 어느 해 보다도 각오를 새롭게 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해양환경 정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어촌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협회 업무영역을 크게 확대 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손 회장은 “이번 총회를 끝으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고난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말하고, “그간 저에게 베풀



■ 한국어항협회는 3월11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16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20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제2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시상(가운데 사진) 및 감사패를 수여(아래 사진)했다. 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어항어촌 발전 및 협회발전



손정식 회장 인사말씀

먼저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한국어항협회 제16기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온 국민을 한 덩어리로 만든 역사적인 월드컵 축구 4강 진출을 비롯한 부산 아시안 게임은 우리 모두를 흥분과 열정으로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종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거문화를 새로운 틀로 바꾸는 대변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5일 역사적인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모두는 이제 차분한 평상심으로 돌아와 개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항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항발전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이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지난해 저희 협회에서는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동안 빈약하기 그지없었던 어항관련 각종 기술도서와 연구보고서를 집중 발간해냄으로써 어항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으며 제5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와 제54회 일본어항어장대회에 참가하여 어항발전을 위한 민간 외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면에 계속>



■ 총회 특별행사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공연을 실시했다.

에 공이 큰 어항인에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특별행사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공연과 함께 어항어촌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했다. □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수상자 △성호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사 박현규 △동광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사 황금주 □ 감사패 수여자 △남화토건주식회사 사장 최상준 △주식회사부흥 부사장 김용덕 △삼부토건주식회사 상무이사 홍학표 △조흥공영주식회사 상무이사 이광호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부사장 정대연 △특수법인선박검사기술협회 관리본부장 기호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무관 안극환

제16기 정기총회 해양수산부장관 치사

오늘 제16기 정기총회를 맞아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손정식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어항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역사의 분수령에서 있다가졌습니다.

지난달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의 출범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큰 기대감을 온 국민에게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 왔던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참 뜻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한 차원 높아진 신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국민적 단합의 저력을 몸소 체험하였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세계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어항관계자 여러분!
이미 세계 각국은 해양 진출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바다개척을 통한 세계 경영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해양국가 건설의 대열에 동참하여 바다를 통해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어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어족 자원도 감소되는 한편,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라 각종 보조금의 감축과 관세인하 등이 예상되는 등 대내외 어업 여건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구조 등은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으며, 어업인

소득증대와 복지어촌건설을 위하여는 어업인 스스로의 자원관리형 어업과 생산기반시설 확대 및 관광 등 다기능 종합어항 및 친환경적 어항개발과 더불어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을 위해 '어촌·어항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 한국어항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과 어장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가칭 '어촌어항협회'로 변경하는 등 어촌어항의 발전 및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친애하는 어항관계자 여러분!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과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국정개혁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항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향상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기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한국어항협회를 창립하여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손정식 회장님께서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어항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협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항관계자 여러분의 행운과 한국어항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난 15년간 어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손정식 회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존개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어항을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관광, 휴양, 레저 등 어촌소득원을 개발해 준다면 돌아오는 어촌으로 환류할 것입니다.

어항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도시와 어촌의 만남의 장, 국제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해안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기술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에 온갖 역량을 다하여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를 대 도약의 해로 설정 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각오를 새롭게 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계획입니다. 해양환경 정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 장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협회 업무영역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협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항구적인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험난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권리와 목소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단합된 힘과 노력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옹호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항인의 살 길이며 나아갈 길임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총회를 끝으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채 고난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그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裴平岩 차기회장 프로필



배평암 한국어항협회 차기회장은 성격만큼이나 업무처리도 깔끔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세한 부분까지 일이 청결 정도로 빈틈이 없으며 기획능력과 통솔력을 두루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지난 67년 11월 수산진흥원에 첫발을 내디딘 배 회장은 수산행정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으로 온화한 성품에다 친화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수산청 시절 자원조성과장과 증식과장을 비롯, 생산국장을 거쳐 해양수산업출범과 함께 수산자원국장, 어업진흥국장, 수산진흥원장과 차관보를 역임했다.

특히 학구열이 뛰어난 배 회장은 대학졸업 후 33년만인 98년에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해양기술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강릉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

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주요약력

△41년 전남 고흥 △65년 부산수산대 증식학과 △98년 동의대 대학원(이학박사) △87년 수산진흥원 통영수산연구소장 △88년 수산청 자원조성과장, 증식과장 △94년 수산공무원교육원장 △95년 수산청 생산국장 △96년 해양수산업 수산자원국장, 어업진흥국장 △97년 수산진흥원장 △99년 해양수산업 차관보 △86년 대통령표창 △94년 녹조근정훈장



연어방류행사에 참석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10일 소속 기관장 및 산하단체장 간담회의를 주재, 13일에는 섬진강, 19일에는 양양군 연어방류행사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3월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충청포럼에 참석, 13일에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총회에 참석, 17일에는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정기월례회의에 참석, 18일에는 상록회관에서 열린 수우의 밤 행사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3월5일 새어업인상 시상식을 개최, 11일에는 수협 위성TV방송국을 개국.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3월3일 송원대학 입학식에 참석, 4일에는 송원중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 16일부터 22일까지는 업무협약차 중국에 출장.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1일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13일에는 경제장관초청 리셉션에 참석, 14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회에 참석, 26일에는 한국농물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3일 전남과학대학 입학식에 참석, 4일에는 남부대학교 입학식에 참석,

7일에는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주주총회에 참석, 14일에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임원개선총회에 참석, 1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회에 참석, 20일에는 전남지역경제인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 28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4일 고흥 도하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 9일에는 재광 도화향우회 산악회를 개최, 14일에는 고달 산동간 도로공사 현장에 출장, 17일에는 협력업체 소장단회의를 주재, 20일에는 전남지역경제인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3월3일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개원식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3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납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1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총회에 참석, 26일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를 주재, 2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를 주재.

▲안희도씨(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는 파랑관측에 관한 제반기술과 시스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번역서 「파(波)를 잔다」를 발간했다.

▲강호석씨(해양수산업 어촌어항과)는 2월27일 모친상을 당했다.

▲해양수산업 △차관보 박덕배 △기획관리실장 서정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은

(1면에서 계속)

또한 제14차 해외어항어촌 조사단을 처음으로 유럽지역에 파견하여 우리 어항인의 안목을 더욱 넓게 함은 물론,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시상, 장학사업, 자매결연학교 지원, 수중집적 폐기물 정화사업과 실태조사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해 쓰레기더미가 된 동해안 일대 해안가를 말끔하게 청소하는 등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특히 협회 창립이후의 사료를 정리하여 한국어항협회15년사를 발간함으로써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한편 장래의 좌표 설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어촌어항 관련 법개정을 공론화 시켜 국제조류에 걸맞은 어촌어항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어항인 여러분!

2003년 계미년은 그리 순탄한 한해가 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일촉즉발의 긴박감이 감도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북한의 IAEA 탈퇴로 인한 한반도 위기감 조성은 경제악화와 사회불안으로 압박해 올 수 있으며, 우리 어항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업 역시 대내외적으로 어업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수산정책의 일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로 어업생산량과 어업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어가소득의 상대적 저위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위치를 날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산정책 방향은 증산시책이나 지원수단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수산인프라 구축과 SOC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어촌과 어항과 어장을 일체로 하는 종합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도시수준의 문화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활력있고 쾌적한 어촌정주권 조성을 위한 어촌의 공원화와 어촌경제권의 중심지이며 어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3월 17일 일본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미야자키 토모사부로 과장보좌 일행을 접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서 환담했다.

조업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구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 위해 4월부터 실시

어선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일정 금액을 주고 정부가 구매하는 해양쓰레기 구매제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어업인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올 경우 돈을 주고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업인들이 1톤당 20만~25만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조업중에 인양한 페어망과 페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다시 해양에 투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양쓰레기 구매제는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40ℓ 짜리 수거용 마대당 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의 경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부산에서 동지나해로 출어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이를 전 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해양쓰레기 구매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12해리 안의 수역에서도 구매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100m) △신안군 사옥~중도간 연도교(900m) △통영시 한산~추봉도간 연도교(300m)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도서개발사업과 관련 앞으로 도서지역에 비해 개발수준이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해 도서별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 불편한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원 개발사업 위주로 투자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도서개발사업을 위한 추진방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개 부처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제1차 개발계획 기간인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 도로, 급수, 소규모어항 시설 등 3천16건의 세부사업에 9천706억원을 투자해 도서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제2차 개발을 시행중이다.

관광어항 조기개발 촉구 강원도해양수산관계관의

동해안을 긴 영동 6개 시·군이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관광어항의 조기개발과 어업기반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최근 환동해출장소회의실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내수면개발시험장, 각 시·군 수산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해양수산관계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강릉시는 안목항의 관광어항 개발을 위해 '강릉항'으로 어항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속초시는 흥계통발어선의 조기감척과 감척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평화의 댐 증축공사로 인해 내수면 어업인

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화천군은 내수면개발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제기된 주요 현안은 △강릉시=안목항관광어항 조기개발, 안인항개발, 주문5리항 물량장 개설 △동해시=어항재해방지사업비 지원,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삼척시=어항시설사업 공급물량 확대, 어촌정주어항 지원 확대 △속초시=종합폐유수거도비지원 확대, 사진항 준설도비지원 △고성군=침체어망인양사업 지원, 다시마 건조공장 건립지원 △양양군=동산항배후용지 조성사업비지원 등이다.

낙후도서 225곳 개발

행자부 3천억원 지원 기반시설 확충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낙후된 도서 225개소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 총 3천66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연도교 및 연륙교, 도로, 어항 등 도서지역 개발사업 594건이 올해 집중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2개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열어 '2003년도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심의·확정해 관계부처 및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규모는 594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총 3천66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소득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급수시설 50개소, 도로시설 90개소, 소규모어항시설 233개소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지리적으로 열악한 225개 도서에 대해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급수·도로·소규모어항 시설 등 지역발전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서별 특성을 살린 생산·소득 증대사업과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에 역점을 뒀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여수시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등 5개 지구에 대한 연도·연륙교 건설에 243억원을 지원, 사업이 완공되는 오는 2007년에는 이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5개 연도교 및 연륙교 건설사업은 △여수시 금오도~안도간 연도교(340m) △장흥군 회진~노력도간 연륙교(450m) △완도군 사동~소량간 연도

서귀포항을 관광미항으로 개발

제주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이어 오는 2005년 시설공사도 발주될 전망이다.

또한 첨단과학단지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 제주개발센터의 사업시행계획도 오는 8월 경 수립돼 개발이 본격화된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한국관광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제출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방안을 바탕으로 현재 1단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는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상반기중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사전협의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인허가 및 기본·실시설계용

역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중인 관계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업기한이 촉박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께 발주해 올 하반기부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협의 및 인허가 등 사전준비과정을 감안해 오는 2005년 1단계 개발부분에 대한 시설공사도 발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한 7대 선도 프로젝트중의 하나로 총 1천110억원을 들여 서귀포항을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관광교통지구, 해양문화지구, 상업지구, 휴게 및 위락지구,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연안 51개 지구 정비 추진

부산 연안 51개 지구가 해변공원 조성 등을 통한 친수공간으로 크게 탈바꿈된다.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 해양수산부가 연안정비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현재 부산에는 13개 지구 연안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698억원이 반영돼 송도해수욕장 침식방지사업(105억원)과 광안리해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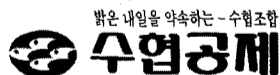
안정비사업(30억원) 등 2개 사업을 이미 착공했다.

부산시는 그러나 부산이 연안을 길게 끼고 있으면서도 곳곳이 방치돼 있는 점을 감안, 연안정비계획을 변경해 기존 14개 지구에서 51개 지구(2천186억원)를 정비대상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어항청소선 소식

| 4월중 어항청소 계획 | | |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 |
|-------------|-------------------|-------------------|------------|--------------------|
| 선 명 | 월 일 | 지 역(항) | 선 장 | 연 락 처 |
| 어항 901호 | 4.7~12 4.21~26 | 연도 격포 | 최동림 | (휴대폰) 011-247-5592 |
| 어항 902호 | 4.7~12 4.21~26 | 원평 전장포 | 김용익 | (휴대폰) 011-243-5590 |
| 어항 903호 | 4.7~12 4.21~26 | 도장 시산 | 조동식 | (휴대폰) 011-230-5591 |
| 어항 904호 | 4.7~20 | 적금도 | 박주종 | (휴대폰) 011-232-5596 |
| 어항 905호 | 4.7~12 4.24~29 | 의포, 농포 농양, 삼덕 | 하용만 | (휴대폰) 011-247-5593 |
| 어항 906호 | 4.7~12 4.21~26 | 포항연안 구계 | 김성훈 | (휴대폰) 011-247-5594 |
| 어항 907호 | 4.7~12 4.21~26 | 수산, 남애 아야진, 봉포 | 최일선 | (휴대폰) 016-661-55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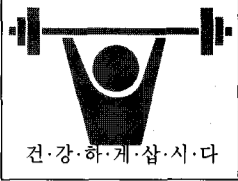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 몰래 버린 오늘 우리모두 앞장서자 나 모르게 오는 피해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급성호흡기 증후군 (SARS)

최근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현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급성호흡기감염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공식 명명하고 전 세계에 경보령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미국 질병통제국(CDC)에서도 공식적인 경계령을 발동했으며,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에서도 환자 발생 감시 체제를 가동했다.

현재까지 이번 괴질은 '비전형(atypical)' 폐렴의 일종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SARS는 중국(광둥지역),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이 지역을 여행한 환자가 귀국하여 유사 증세가 발생한 캐나다 등지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질병이 가장 먼저 발병한 중국에서는 광둥지역에서 305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그 중 5명이 숨졌다. 숨진 환자 가운데 2명에게서 비전형 폐렴의 원인균 중 하나인 클라미디아 감염이 확인됐으나 다른 환자들에게서는 이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상하이와 홍콩을 여행한 후 SARS가 발생한 환자를 기점으로 이 환자를 진료한 20명의 의료진이 동일한 증세를 보였으며, 홍콩에서도 23명의 의료진이 유사 증세를 보여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SARS는 최근 홍콩, 광둥,

베트남 등 유행 지역에 여행을 했거나, 의심되는 환자와 긴밀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 X-선상 폐렴의 소견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다.

아직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효과적인 예방법은 분명치 않으나,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손을 잘 씻고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것뿐이다. 또한 의심되는 환자가 생기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보고하고 환자는 철저히 격리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감염되지 않도록 호흡기 격리 및 접촉 격리를 해야 한다.

치료는 현재로서는 비전형 폐렴에 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지금 WHO와 미국 방역센터(CDC)를 중심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가 활발히 진행중이므로 머지않아 정확한 원인 및 치료, 예방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질병 발생의 추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이번의 예와 같이 감염 질환들은 전염성이 있어 동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보건 정책에 있어 국립보건원을 강화하고 감염학을 전공하는 민간 전문가들을 정책적으로 양성, 이러한 질병들의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76)

第5章 콘크리트

표 5.4.2 수평환산길이

| 항 목 | 단 위 | 공 칭 치 수 | 수평환산 길이* (m) |
|-----------|-----|------------|--------------|
| 상향수직관 | 1m당 | 100A (4B) | 3 |
| | | 125A (5B) | 4 |
| | | 150A (6B) | 5 |
| 테이퍼관** | 1개당 | 175A→150A | 3 |
| | | 150A→125A | |
| | | 125A→100A | |
| 벤트(bent)관 | 1개당 | 90° R=0.5m | 6 |
| | | R=1.0m | |
| 플렉시블 호 스 | | 5~8m의 것 1개 | 20 |

* 보통콘크리트의 압송 값이다.

** 테이퍼관은 길이 1m를 표준을 하는 값이고, 수평환산 길이는 작은 쪽의 직경에 대응하는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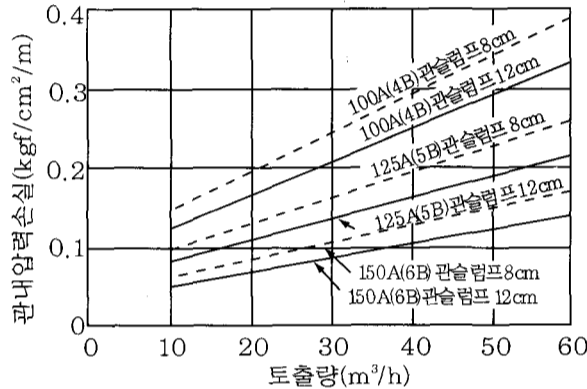


그림 5.4.1 보통콘크리트의 압송에 있어서 관내압력 손실의 표준치 (세골재치수 20~25mm의 경우)

③ 버킷

어항공사에서는 방파제 상부공 등 육지로부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

트를 타설하는 일이 많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해상운반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타설량이 많은 경우는 경제성 또는 품질관리에 유리한 콘크리트믹서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회당의 타설량이 적고 콘크리트펌프에 의한 운반이 곤란하고 운반거리가 짧은 경우는 육상수송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버킷에 옮겨 실어서 해상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의 타설 및 배출시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콘크리트의 배출이 용이한 것을 산정한다.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은 중앙부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좋고, 배출구의 구조는 개폐가 용

이하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공사에서는 태선을 사용하여 시공장소까지 운반하고 크레인선 등으로 들어올려서 타설한다. 육상공사에서는 운반거리 등 시공조건에 따라 타워크레인, 데릭크레인, 케이블크레인, 콘크리트용 타워, 광차, 트럭 등을 사용하여 타설장소까지 운반한다. 크레인 등으로 운반할 경우는 진동이 작고 타설장소에서 상하, 수평 어느 방향으로 운반하는 것도 용이하나 기타의 방법으로는 운반중에 진동, 충격을 받아 재료가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타설

소정품질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담당자는 설계도, 사양서에 따라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상사태의 대책을 확인하여 타설작업이 원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은 시공계획서 및 운반계획, 타설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재료분리가 없는 균질의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① 타설준비

콘크리트의 타설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의 규모, 형상, 콘크리트의 시공수량 등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공급능력, 시공상의 난이, 계절,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업의 공정, 설비, 인원배치계획을 결정하고, 그 외에 타설구획, 이어붓기이음의 위치, 타설순서와 타설속도를 계획한다. 또 거푸집 철근의 보호방법 및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 정의

중독의 임상적인 용어는 중독을 "약물의 사용에 과도하게 열매이고 약물의 공급을 계속 원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킨 후에도 그 중지하는 것이 끝난 후에 다시 재발하는 충동적인 약물 사용 행동의 패턴"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유형도 다양하다는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 중독이라는 용어도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를 넘어서자 인터넷의 사용이 널리 퍼져 갔고 1996년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도 중독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란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분류

사이버 중독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주로 나누어 보면 통신 중독, 게임중독 및 음란물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통신중독: 통신중독은 정보이용자가 대화방, 머드게임,

강압적으로 컴퓨터를 못쓰게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동호회 등의 순서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전자우편이나 정보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게임중독: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유익한 면이 있지만 지나친 게임은 중독 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 리셋중후군(Reset syndrome)

③ 음란물 중독: 특히, 청소년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중독으로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 4명 중 1명이 사이버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조영우 박사가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38개 문항으로 된 사이버중독 지표를 개발, 전국의 중3과 고1 학생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사이버중독 현상은 중학생 27.5%와 고교생 23.8%

가 보여 중학생이 더 심각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전체의 45.4%를 차지, 남녀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인터넷상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40.7%, '자주 있다' 19.2%로 각각 나타났으며, 사이버 성폭력 경험은 23.5%가 '조금 또는 자주 있다' 고 답했다.

인터넷 사용 도중 우연히 음란물 정보에 접한 경우는 44.7%가 '가끔 있다', 14.6%가 '자주 있다' 고 답해 전체의 59.3%가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컴퓨터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게임이 38.3%로 가장 높았고 영화나 음악, 동영상 감상 21.8%, e-메일 주고받기가 15.1%, 채팅하기와 인터넷 사이트 탐색하기가 각각 12.4%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그러나 사이버중독·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간에서 접하는 폭력이나 혐기 정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또는 매우 심각하다'는 답은 12.8%에 그쳤으며 바이러스 유통의 영향은 13.7%, 스팸메일 유통의 영향은 19.1%만 '조금 또는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이버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중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은 1~2시간이 31.4%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 25.9%, 2~3시간 24.3%로 1시간 이상이 전체의 81.7%였고 1시간 이내는 18.3%에 그쳤다.

자기가 마음먹은 것보다 오래 인터넷을 한 경우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49.5%가 '가끔 그렇다', 21.3%는 '자주 그렇다', 15.5%는 '거의 매번 그렇다'고 답했으며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도 60.7%,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다'는 답도 52.8%나 됐다. 조 박사는 "이 연구는 학생들의 사이버중독 측정지표를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이버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컴퓨터를 못쓰게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중독 정보센터'에선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① 목적없이 웹서핑을 금지하고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지켜라 - 뚜렷

한 목적이 없는 웹 서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일을 다 끝마친 후에 컴퓨터를 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②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 -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은밀성이 사이버 중독증을 악화시키므로 보다 공개된 장소, 예를 들면 마루 등으로 컴퓨터의 위치를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불필요한 CD는 정리하고 컴퓨터를 업무 또는 공부 목적으로만 사용하라 - 컴퓨터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므로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과감하게 불필요한 게임 CD는 정리하고 게임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④ 신체 활동 시간을 늘려라 - 땀을 흘리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모니터 앞에서는 절대로 식사하지 말라.

⑤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늘려라 - PC 게임방을 갈 경우에도 혼자 가지 말고 친구 등과 함께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지키는 게 좋다.

⑥ 대인활동을 찾아라 - 인터넷 이외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인활동을 찾아서 즐기는 게 좋다. 대인활동의 껌수도 가능한 만큼 수록 좋다.

생활정보

생활정보

청소년 사이버 중독